

문 대통령 광클 구매

(빠른 속도로 마우스 클릭)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M)의 1호차인 '캐스퍼'가 15일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관련기사 9면>

민선 7기 이용섭 광주시장을 대표하는 성공 사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는 2019년 1월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2년 8개월, 같은 해 12월 공장 착공 후 1년 9개월여 만에 첫차 생산이라는 기적 같은 성과를 내놓게 됐다. 특히 실용성은 물론 안정성과 독특한 개성까지 갖춘 캐스퍼는 사전 예약에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구매 예약에 나서면서, 예약 개시 첫날에만 이미 올해 생산분을 돌파하는 등 '초대박'을 예고하고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 등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

을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구매를 위해 사전예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캐스퍼 사전예약 홈페이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예약 신청이 폭주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직접 인터넷 예약을 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광주현장을 방문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여왔다.

박 대변인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 생산 차를 산 것"이라면서 "이 차는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탈 예정이며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사회적 대타협



실용성·안정성 강조한 경형 SUV
차량가격 1385만원~1870만원
사전계약 올 생산량 1만2천대 돌파

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면서 "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8개 지역에서 상생협약이 맺어졌다. 앞으로 총 51조원의 투자와 직간접 일자리 13만 개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자동차는 이날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의 주요 사양과 내장 디자인을 공개하고,

'캐스퍼' 초대박 났다

온라인 얼리버드 예약(사전계약)을 시작했다. 15일 1호차 양산을 시작으로 29일 판매가 개시된다. 캐스퍼는 1·2열 전 좌석에 풀당·슬라이딩·리클라이닝 기능을 적용, 공간 활용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운전석 시트가 앞으로 완전히 접히는 풀 플딩 시트를 적용한 것은 물론 모든 트립(등급)에 전방 충돌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등 지능형 안전기술인을 경형 차량 최초로 기본 적용했다.

캐스퍼 사전계약 개시를 앞두고 가장 큰 관심사였던 가격은 트립별 스마트 1385만원으로, 모던 1590만원, 인스퍼레이션 1870만원으로 책정됐다.

캐스퍼에 대한 관심과 인기도 뜨겁다. 현대차가 지난 1일부터 진행한 얼리버드 예약 알림 신청 이

벤트 참여자는 13일만에 13만6000여명을 넘어섰고, 캐스퍼 온라인 접속자는 무려 70만명에 달하는 등 초반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4일 오후 2시 현재 캐스퍼 사전 계약은 이미 올해 생산 예정량인 1만2000대를 돌파했다.

한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15일 오전 10시 양산 1호차 생산기념식을 연다. 임서정 청와대일자리수석 이 문재인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용빈 국회의원,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양산을 기원할 예정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상사화 활짝 ... "가을이 왔어요" 14일 오전 시민들이 가을 전령사로 불리는 상사화가 핀 광주시 광산구 첨단둘레길을 산책하면서 초가을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가위 다가오는데 농가엔 근심만 한가득 ▶6면

조현영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영화 '킹스맨'과 열가 '위풍당당 행진곡'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한국에너지공대 수시 2412명 몰려 24.1대 1

내년 3월 개교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KENTECH)의 첫 수시모집에 2412명이 몰려 경쟁률 24.1대 1을 기록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정원 미달 사태에도 세계 유일 에너지특화대학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전력 쉼터 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해 이날 오후 6시 마감한 한국에너지공대 단일학부 100명 수시모집에 2412명이 지원했다. 수시 최종 경쟁률은 24.1대 1로, 이는 서울대 공과대

학 경쟁률(4.6대 1)보다 5배 높고 카이스트를 포함한 5대 이공계특성화대 수시 평균 경쟁률(9.4대 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앞으로 정시 10명을 더해 총 110명을 뽑는다.

2025년 전학년 편제 완성 때 대학원생은 600명, 학부생은 40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수와 교직원 등 각 100명 채용할 계획이다. 이날 현재 임용 확정된 교원은 36명이다.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025년까지 총 8289억원으로 추산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퇴한 정세균 득표수 처리 민주당 대권 경선 변수 되나

이재명 측 "무효표 뺀 뒤에 조정"

이낙연 측 "무효표 빼면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레이스에서 이탈한 정세균 전 총리가 그동안 얻은 득표수 처리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전 총리의 득표수를 총 투표자수에서 빼면 계산 과정에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에도 변화가 생기고, 총 투표자수를 가만 두면 현재 득표율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정 총리의 득표수를 총 투표자수에서 빼면 현재 51.4%로 과반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득표율이 53.71%로 상승해 향후 광주·전남지역 경선과 2차 슈퍼위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정치권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 전 총리는 누적투표수 55만5988표(투표율 74.03%) 중 2만3731표를 얻으며 4.2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 11일 대구·경북, 12일 강원 지역순회 경선 투표 결과와 8·12일 진행된 64만1922명가량의 1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합산한 수치다.

하지만 정 전 총리가 지난 13일 중도 하차하면서 그가 기록한 2만3731표는 무효표가 되면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정 전 총리의 득표수를 총투표수에서 제외할 경우 현재까지의 누적투표수는 53만2257표로 조정되면서 후보자별 투표율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 경우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경기지사(28만5856표)의 득표

율은 기존 51.41%에서 53.70%로, 2위인 이낙연 전 대표(17만21790표)는 31.08%에서 32.46%로 조정된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만3122표)은 11.35%에서 11.85%, 박용진 의원(6963표)은 1.25%에서 1.30%, 김두관 의원(3526표)은 0.63%에서 0.66%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 특별당규 제20대대통령선거 후보자선출규정' 제59조(후보자의 사퇴)의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규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무엇보다도 이 규정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지사의 득표율이 53.70%로 상승하면 결선투표 개최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 전 총리의 사퇴에 따른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고,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은 지지성향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인사인 이기호(담양함평영광장성)·이병훈(광주 동남) 의원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전체 투표자수에서 무효표를 빼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 지사를 지지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민심과 당심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도사퇴 후보의 무효표를 총 투표수에서 뺀 뒤 다른 후보들의 투표율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 기업

경 광주글로벌모터스 양산 1호 차 생산 축

"광주 시민의 기업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최고 품질의 자동차를 생산하겠습니다"

2021년 9월 15일

GGM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직원 일동

캐스퍼(CASPER)